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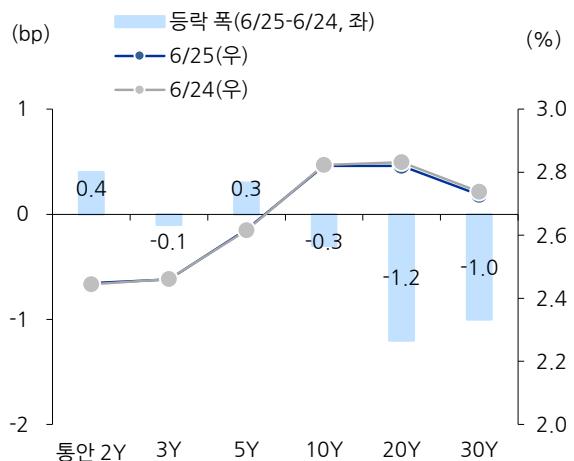
Eugene's FIICC Update


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38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		(단위: %, bp, 틱)			
		6/25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460%	-0.1	-1.2	-13.6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820%	-0.3	-5.6	-35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 bp)	36.0	36.2	40.4	25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7.16	-1.0	5.0	51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8.46	-3.0	68.0	154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784%	-4.2	-17.0	-45.6
	미국채 10년물	4.293%	-0.4	-9.7	-28.0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 bp)	50.9	47.1	43.6	33.3
	독일국채 10년물	2.568%	2.5	7.2	20.4
	호주국채 10년물	4.119%	-3.6	-13.4	-24.9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보합세 마감.
- 간밤 미국채 금리에 연동되어 강세 출발. 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신뢰지수가 부진했던 결과.
- 다만 오전 중 진행된 한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 회에서 다소 매파적 입장이 확인되자 금세 보합권까지 강세폭 축소.
- 장정수 금융안정 국장, 최근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상황을 본다면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를 더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힘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연준 이사회가 SLR 규제 완화안을 공개하자 수급 개선 기대 심리 속 금리 하락.
- 파월 상원 은행위원회 발언도 강세 요인으로 작용.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며, 인하 시점이 빨리질 수 있으나 시점을 언급할 수는 없다고 언급.
- 한편 미국채 5년물 입찰은 다소 부진한 수요가 유입되었으나 금리 영향은 제한적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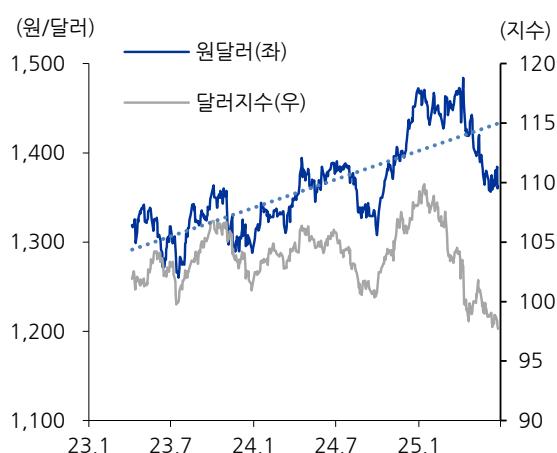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		(단위: %, \$)			
		6/25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62.40	0.2%	-0.5%	-7.5%
	달러지수	97.70	-0.3%	-1.2%	-9.9%
	달러/유로	1.166	0.5%	1.6%	12.6%
	위안/달러(역외)	7.17	0.1%	-0.3%	-2.2%
	엔달러	145.26	0.2%	0.1%	-7.5%
	달러/파운드	1.366	0.4%	1.8%	9.2%
	해알/달러	5.56	1.0%	1.1%	-100%
상품	WTI 근월물(\$)	64.92	0.9%	-13.3%	-9.5%
	금 현물(\$)	3,332.62	0.3%	-1.1%	27.0%
	구리 3개월물(\$)	9,727.00	0.6%	0.7%	10.9%
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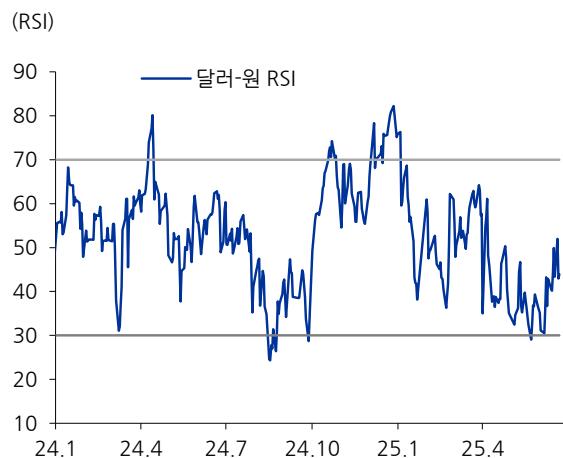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2.20원 상승한 1,362.4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361.20원 마감.
- 간밤 달러는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발언과 미국 지표 부진 속 하락. 달러-원은 전거래일 대비 보합권에서 출발.
- 오전 중 1,35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하던 달러-원은 점심 무렵부터 1,360원대로 반등. 저점 매수세와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 속에 1,350원대에서 하방이 지지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채 금리 하락 속 약세.
- 전일 금융시장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으나,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는 등 위험 선호 심리는 양호하게 유지.
- 연준 인사들은 SLR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자 미국채 금리가 반락했고, 달러도 동반 약세.
- 파월 의장은 이를 째 이어진 의회 증언 과정에서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며,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질 수 있지만 특정 회의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고 발언.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3~4명을 고려 중이라 언급.